제1부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1부 · 감정은 참된 신앙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

『신앙감정론』 제1부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중 둘째 단락 「감정은 참된 신앙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 인쇄 153~179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앞에서 감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정은 의지가 생생하고 힘 있게, 느껴질 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장은 그 정의에서 출발해 “참된 신앙은 대체로 감정 안에 있다”는 명제를 열 가지 근거로 증명합니다. 처음 세 근거는 신앙의 본성과 인간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신앙은 미지근할 수 없고, 감정은 행동의 원천이며, 감정이 움직여야 사람이 바뀝니다. 이어지는 다섯 근거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믿음을 묘사하는 방식, 사랑의 계명, 다윗·바울·요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모습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두 근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수단, 그리고 '굳은 마음'이라는 성경의 죄 개념입니다. 결론에서 그는 단서를 답니다. 모든 감정이 은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감정의 세기가 곧 신앙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감정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맺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참된 신앙은 미지근할 수 없다

에드워즈는 먼저 감정의 정의만으로도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 마음의 성향과 의지가 활발하게, 불타듯 움직이는 것이라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향은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고, 의지는 그 기울어짐이 실제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은 말로만 “하고 싶다”고 하면서 결코 하지 않는 약하고 생기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무관심보다 조금 나을 뿐입니다. 신앙의 일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약하면 그 크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앙을 '경건의 모양'과 구별해 '경건의 능력'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씨름, 면류관을 얻으려는 몸부림, 목숨을 노리는 적과의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처럼 은혜의 정도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육신의 감정을 이길 만큼 살아 움직입니다. 참 제자는 부모와 가족과 재산과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 감정 = 의지가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
2. 하나님은 '말로만 원함'을 받지 않으신다
3. 신앙의 일은 커서 미지근함이 괴이하다
4. 참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다
5. 약한 신자도 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 **로마서 12:11**
>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명령, 열정은 선택이 아니다
>
>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 **신명기 6:4~5**
> 마음·성품·힘을 다한 사랑이 하나님의 요구다
>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신명기 10:12**
> 경외, 사랑, 전심, 성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30:6

전심의 사랑은 '마음의 할례', 곧 중생의 열매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3:5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신앙과 참 신앙을 가른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1:7

성령은 능력과 사랑의 영, 곧 거룩한 감정의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누가복음 24:32

엠마오 제자들처럼 성령은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참된 신앙은 언제나 강력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감정을 행동이 솟아나는 샘으로 만드셨습니다. 감정이 인간 본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거룩한 감정도 참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거듭날 때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미움·갈망·희망·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에드워즈는 세상에서 모든 감정을 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멈춰서 죽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이익을 좇고, 야심가가 명예를 좇고, 쾌락주의자가 쾌락을 좇는 것도 모두 감정 때문입니다. 세상일에서 세속적 감정이 행동을 움직이듯, 신앙에서는 신앙의 감정이 신앙의 행동을 움직입니다. 참된 믿음은 본질상 실천적이므로 감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이 감정을 행동의 샘으로 지으셨다
2. 감정을 빼면 세상은 멈춘다
3. 탐욕·야망·쾌락 추구도 감정이 움직인다
4. 신앙도 실천적이니 감정이 원천이다
5. 머리 지식만으로는 진지할 수 없다

> “감정 없이 교리적 지식과 사변적 지식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영위해 나갈 수 없다.”

📜 3. 감정이 움직여야 사람이 바뀐다

신앙의 진리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만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에드워즈는 교회에서 흔히 보는 모습을 예로 듭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 죄인의 영원한 비참과 의인의 영광, 복음의 달콤한 초청까지 다 듣습니다. 그런데도 마음과 행실은 전과 똑같습니다. 이유는 하나, 들은 것이 감정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진지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지도, 그리스도께 피하지도 못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도 감정이

결국 신앙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1. 들어도 안 바뀌는 건 감정이 안 움직여서
2. 감정 없이 구원을 진지하게 구할 수 없다
3. 식은 신자의 회복도 감정의 각성에서
4. 큰 변화가 있다면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는 뜻

📜 4. 성경은 믿음을 여러 감정으로 묘사한다

에드워즈는 성경이 믿음을 두려움·소망·사랑·미움·갈망·기쁨·슬픔·감사·자비·열정과 늘 함께 묶는다는 점을 하나씩 보여 줍니다. 성도의 대표 호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소망은 믿음·사랑과 함께 세 가지 큰 덕에 속하고, 투구와 닻에 비유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이 진짜인지 가리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복 있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기쁨은 성경이 거듭 명령하는 것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감사는 시편 곳곳에 나타납니다. 자비는 율법의 '더 중한 것'입니다. 열정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된 것입니다. 사랑은 다음 근거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는 이것이 수많은 구절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신앙과 감정의 깊은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이기에는 충분하다고 결론짓습니다.

1. 성도의 호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2. 소망은 구원의 투구요 영혼의 닻
3. 죄를 미워함이 믿음의 시금석
4. 주림·기쁨·애통·자비가 복 있는 자의 표
5. 미지근함 대신 열정이 요구된다

> **고린도전서 13:13**
> 소망은 믿음·사랑과 함께 세 큰 덕에 속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히브리서 6:19

소망은 폭풍 속에서 영혼을 붙드는 닻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잠언 8:13

여호와를 경외함은 악을 미워함, 미움도 신앙의 일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시편 42:1~2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향한 갈망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갈망이 복의 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빌립보서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명령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51:17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 **디도서 2:14**
> 그리스도는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
>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5. 모든 감정의 뿌리, 사랑

성경은 참된 신앙 전체가 사랑 안에 들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감정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다른 모든 감정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지식과 은사와 사역도 헛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영혼의 선한 기울어짐인데, 이것이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움직이면 곧 감정이 됩니다. 에드워즈는 오해를 막으려고 단서를 붙입니다. 이 사랑은 생각 없이 이해 없이 움직이는 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사랑이 몸에 밴 것이며, 그 밑에는 빛(바른 이해)이 있고 그 열매로 행함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미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을 해치는 것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 사랑과 미움은 갈망·소망·두려움·기쁨·슬픔·감사·분노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 있는 사랑은 반드시 여러 감정을 낳습니다. 죄를 미워함,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까 두려워함,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의 기쁨과 멀리 계신 듯할 때의 슬픔, 장차 그분을 누릴 소망 같은 것들입니다.

1. 두 큰 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다
2. 사랑 없으면 지식·은사·사역도 헛되다
3. 사랑은 감정 중 으뜸이자 모든 감정의 뿌리
4. 맹목적 충동이 아니라 빛 위에 선 사랑

마태복음 22:37~40

하나님·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3:8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10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14

온 율법이 이웃 사랑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디모데전서 1:5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고린도전서 13:1~3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지식과 은사도 무가치하다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6. 탁월한 성도들: 다윗, 바울, 요한

성경의 가장 뛰어난 성도들은 그 신앙이 거룩한 감정 안에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기 마음을 기록해 그 글이 성경의 일부가 된 세 사람을 고릅니다. 첫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탄, 목마름, 기쁨과 감사,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혐오가 쏟아져 나온 노래입니다. 게다가 시편은 다윗 개인의 노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위해 성령의 인도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시대 성도의 신앙을 표현하기에 알맞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성도를 향해 유모 같은 애틋한 사랑을 품었고, 동족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꼈고, 환난 중에도 늘 기뻐했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섬겼습니다. 에드워즈는 바울의 신앙이 감정과 깊이 얽혀 있음을 못 보는 사람은 눈앞의 빛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셋째, 주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입니다. 그의 글은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1. 시편은 거룩한 감정이 쏟아진 노래
2. 시편은 모든 성도의 신앙을 담는 그릇
3.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
4. 바울의 눈물이 그의 감정을 증언한다
5. 요한의 글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가득하다

> **고린도후서 5:14~15**
>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해 고난 속에서도 나아가게 한다
>
> [14]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그가 모든 사람을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7~8

유모처럼 목숨까지 주고 싶은 성도 사랑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고린도후서 2:4

많은 눈물로 쓴 편지, 넘치는 사랑의 표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9:2

동족 때문에 생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고린도후서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11:2~3

교회를 향한 거룩한 질투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행전 20:19, 31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밤낮 눈물로 훈계함

사도행전 20: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 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사랑 넘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덕은 거룩한 감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씨름하실 때 두려움과 슬픔이라는 강한 본성적 감정을 이기게 한 것도 죽음보다 강한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분의 감정이 가득합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분을 삼켰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보며 근심하고 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아시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습니다. 십자가 전날 밤의 고별 설교(요한복음 13~16장)와 중보기도(요한복음 17장)는 사람이 전한 어떤 설교보다 사랑과 감정이 넘친다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1. 그리스도는 거룩한 감정의 완전한 모범
2. 겟세마네의 승리도 거룩한 사랑 덕분
3. 열심·근심·눈물·간절함·불쌍히 여김
4. 다시 살릴 것을 알고도 함께 우셨다
5. 고별 설교는 가장 애정 넘치는 설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분을 삼켰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마가복음 3:5

완악한 마음을 근심하고 노하신 그리스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누가복음 19:41~42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그리스도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 13:34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 모으려 하신 간절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22:15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마태복음 9:36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

요한복음 11:35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우신 예수님

>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8. 천국의 경건도 감정이다

천국에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경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경건이 주로 강렬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찬양에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천국 성도는 몸이 없으니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체액도 없고, 따라서 감정도 없지 않은가.” 에드워즈는 이 반론이 어리석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몸의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감정입니다. 몸의 반응이 마음에 작은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감정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감각이 몸의 반응보다 먼저 있으므로, 이것은 몸 밖의 영혼에도 있습니다. 또 지상 성도의 거룩한 사랑과 기쁨은 천국의 빛과 생명의 '여명'입니다. 정도와 환경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는 금의 비유로 정리합니다. 금의 본질을 알려면 광석이 아니라 정련된 금을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본질을 알려면 그것이 완전한 곳, 곧 천국을 봐야 합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난 하늘 시민이므로, 그 안의 경건은 하늘 경건이 전해진 것입니다.

1. 천국 경건 = 강렬한 사랑·기쁨·찬양
2. 감정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다
3. 지상의 거룩한 기쁨은 천국의 여명
4. 정도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
5. 순수한 금을 보듯 천국에서 본질을 본다

잠언 4:18

돋는 햇볕처럼 점점 밝아지는 길, 지상과 천국의 연속성

>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40

지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15

영생이 지금 성도 안에 '거한다'는 표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고린도전서 13:8~12

부분적으로 아는 지금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때는 같은 사랑의 연속이다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9. 기도·찬송·성례·설교가 증언한다

하나님이 신앙을 표현하라고 정하신 수단들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완전하심이나 우리의 형편을 알려 드리거나 그분 마음을 바꾸려는

찬송을 산문이 아니라 시와 음악으로 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시와 음악에 마음이 움직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복음을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여 주어 감정에 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주석과 경건 서적이 있어도 설교가 필요한 까닭은, 설교가 말씀을 생생하게 적용해 마음에 새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이미 아는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해 마음을 깨우고, 특히 사랑과 기쁨을 북돋우려고 세워졌습니다.

1. 기도는 하나님 설득이 아니라 내 마음 준비
2. 찬송이 노래인 이유: 마음을 움직이려고
3. 성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
4. 책이 있어도 설교가 필요한 이유
5. 사역의 목적은 성도의 사랑과 기쁨

> **베드로후서 1:12~13**
> 이미 아는 진리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 말씀 사역이다
>
> 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 **에베소서 4:11~12, 16**
> 직분은 사랑 안에서 몸을 세우려고 주어졌다
>
> **에베소서 4:11-12**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 하심이라
>
> **에베소서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 스스로 세우느니라

[3]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고린도후서 1:24

사역자는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 10.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성경은 죄를 '마음의 완악함', 곧 굳은 마음과 끊임없이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굳은 마음을 근심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진노를 쌓고,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게 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굳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덕스러운 감정에 잘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새끼에게 무정한 타조를 두고, 위험 앞에서도 꿈쩍 않는 사람을 두고 '굳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거룩한 일에 쉽게 감동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해져 통곡한 요시야를 칭찬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죄의 뿌리를 거룩함의 결여로 봅니다. 그러니 죄가 경건한 감정이 없는 굳은 마음에 있다면, 거룩함은 경건한 감정에 있습니다. 다만 에드워즈는 모든 감정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움·분노·허영 같은 이기적 감정은 굳은 마음에서도 잘 자랍니다. 굳음과 부드러움은 어떤 감정에는 열려 있고 어떤 감정에는 닫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 성경은 죄를 '굳은 마음'과 묶는다
2. 회심 = 돌 같은 마음 대신 새 마음

4. 부드러운 마음 = 거룩한 일에 쉽게 감동

5. 굳은 마음에도 분노·허영은 잘 자란다

마가복음 3:5

그리스도는 완악한 마음을 근심하셨다

>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로마서 2:5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진노를 쌓는다

>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에스겔 3:7

마음이 강퍅해 말씀을 듣지 않는다

>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히브리서 3:12~13

죄의 유혹으로 강퍅해짐을 서로 권면해 막으라

>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에스겔 36:26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심, 회심의 그림

>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연해 통곡한 요시야를 하나님이 칭찬하심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잠언 28:14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욥기 39:16

새끼에게 무정한 타조, '굳음'이 감정 없음을 뜻하는 예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 11. 맺음: 감정의 세기가 곧 신앙의 크기는 아니다

에드워즈는 신앙이 대체로 감정 안에 있다는 결론을 다시 확인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첫째, 참된 성도 안에도 영적이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감정이 은혜가 아니라 본성에서 나옵니다. 둘째, 감정이 머무는 자리는 몸이 아니지만, 몸의 상태는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거룩한 감정은 '습관'이 된 마음의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도는 한 순간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그 바탕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바탕의 강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갑작스러운 내적 흥분과 늘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선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감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원리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 겉 행위도 선하지 않습니다.

1. 성도 안에도 본성적 감정이 섞인다
2. 몸 상태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

4. 뜨거운 현상 ≠ 깊은 신앙

5. 감정 없는 지식·행위는 선하지 않다

> “거룩한 감정이 없이는 참된 신앙이란 없다는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의 성향과 의지가 느껴질 만큼 생생하고 힘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향해 기울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성향(inclination)
마음이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의지
그 기울어짐이 실제로 무엇을 택하고 거부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에드워즈에게 감정은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말로만 원함(우유부단함)
“믿고 싶다,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약한 마음입니다.

경건의 능력 / 경건의 모양
마음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과, 겉으로만 갖춘 종교 형식을 가르는 말입니다.

사변적 지식
머릿속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앎을 말합니다.

본능적(자연적) 감정

은혜가 아니라 타고난 본성이나 몸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성도 안에도 섞여 있습니다.

습관(habit)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지속적 바탕입니다. 신앙의 크기를 재는 기준입니다.

굳은 마음 / 부드러운 마음
거룩한 일에 무감각한 돌 같은 마음과, 거룩한 일에 쉽게 감동하는 마음입니다.

체액(동물 정기)
당시 사람들이 감정과 함께 몸속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한 미세한 몸의 흐름입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이 감정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곧 하나님을 향해 생생하게 움직이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 그 근거는 인간의 구조, 성경의 언어, 사랑의 계명,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모범, 천국의 모습, 예배 수단, '굳은 마음'이라는 죄 개념입니다.
- 모든 감정의 뿌리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빛(이해)을 토대로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 그러나 감정은 섞여 있고 몸의 영향도 받으므로, 감정의 세기가 곧 신앙의 크기는 아닙니다.
- 그럼에도 거룩한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과 행위는 선하지 않습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3편 · 참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에 있다 · 벧전 1:8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